지상백고좌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가 된다”

12면에 이어

“지계와 함께 평소 수행 게을리 말고
3가지 장점 말하고 1가지 충고하라”
言事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법

만행 납자에겐 “부처님 성지 순례를”
부처님의 생애 들여다보고 수행 점검
성지서 무엇을 실천할지 다짐해 보길



무관 스님이 정행당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스님의 불교관, 수행관은 한국 불교의 큰줄기에서 뻗어 나온 것이었다. 스님은 오대산에서 수행자가 됐다. 그리고 가야산에서 수행의 틀을 완성했다.

“저는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3살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상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절에 가면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영어사전 하나 들고 입산을 하게 됐습니다. 1959년 음력 1월 12일에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일주일 뒤에 절에 왔습니다.”

고향 김제에 있는 작은 절로 간 스님은 향학열(向學熱)에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새벽에 일어나 도량석하고 염불하면서 자연스럽게 절 사람이 됐습니다. 3일 정도 지나 수행자가 되고 싶다 했더니 스님들께서 ‘너는 세속공부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공부가 크게 다르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려 정식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하.”

스님은 공양주부터 했다. “아무 맛 없는” 밥을 척척(?) 해냈다. 어른스님들의 당부에 따라 8개월만에 금산사로 갔다. 또래의 행자가 30여 명 가량 됐다. 다시 시간이 흘러 예산 향천사를 거쳐 오대산에서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을 다졌다. 감자 서너 개에 쌀과 보리가 몇 알씩 얹혀 있던 밥을 먹는 일이 일상이었지만 오대산에서의 단련시간은 잊을 수 없다.

얼마 뒤 스승 희섭 스님을 따라 화성 용주사로 갔다. 운허 스님과 탄허 스님을 모시고 무비, 성타, 월은, 송원, 주인 스님 등이 역경연수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무관 스님은 원주로서 스님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다.

3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오대산으로 돌아와 상원사에서 탄허 스님에게 〈서장〉과 〈선요〉를, 그 후 다시 용주사로 가 월운 스님한테 〈능엄경〉을 배웠다.

“한암 스님과 그 상좌 보문 스님, 손상좌이자 저의 은사인 희섭 스님께 오대산의 가풍을 배웠습니다. 사숙이신 탄허 스님께도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암 큰스님과 보문 노스님을 보면서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은사 희섭 스님을 모시면서도 철저한 자기수행과 대중살림의 원칙 등을 면밀히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내전(內典)을 마치기 위해 1971년 해인강원에 입학했다. 2년간 치열하게 공부한 뒤 강원을 졸업했고 지관 스님의 추천으로 해인강원 강사가 된 뒤에는 현대화된 강의법을 알아보고자 정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공부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본격적인 공부의 과정에서 만난 어른들이 바로 자운 스님과 지관 스님이다.

“종단의 대표적인 율사인 자운 큰스님은 스스로를 상참괴승(常慙愧僧)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처럼 성불해 중생제도를 하지 못함을 창피해하면서 항상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부끄러운 줄 아는 참괴의 도리로 사셨어요. 큰스님은 여름에도 가사장삼을 수하고 3년간 국립도서관을 다니면서 사분율을 중심으로 오분율까지 직접 옮겨 쓰시면서 3년 동안 연구에 진력했습니다. 저 역시 출가자의 초심을 지켜주는 것이 계율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스님을 모시고 율을 공부했습니다. 이 인연으로 자운-지관 스님으로 이어지는 계맥(戒脈)을 잇게 됐습니다.

자운 큰스님의 제자인 지관 스님은 말이 필요 없는 대강사이십니다. 1970년대 해인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스님은 하루 두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비롯한 각종 내외전을 보시다가 밤 12시가 되면 독성각에서 108배를 하시고 잠깐 방에서 주무신 뒤 새벽 3시 예불에 나오셨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총무원장 소임을 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가산불교대사림〉입니다. 스님의 ‘문자사리’가 곧 완성됩니다. 스님의 강맥(講脈)을 이은 저로서도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오대산의 행(行)과 가야산의 향(香)이 묻어났다.

부처님의 생애가 중요한 이유

스님은 말길을 다시 계율로 돌렸다.

“법(法)은 삼수 변에 갈 거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정된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수능엄삼매, 법화삼매, 해인삼매, 원각삼매 등 어떤 경전에든지 삼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삼매는 삼매입니다.

사람들의 집착을 불교의 삼매로 전환시키는 것이 수행이고 계율입니다. 여기서 법은 시작됩니다. 탐욕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욕존(離欲尊)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자비를 말합니다. 이것을 갖추기 전까지 보살들이 수행을 합니다. 이 수행 역시 계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율을 잘 실천해야 마음안정이 이뤄지고 집중이 생겨 삼매를 증득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 것과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출발선이 계율호지(戒律護持)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님은 이어서 보조국사 지눌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의 첫 구절을 설명했다. 자상한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부초심지인 수원리악우 친근현선 수오계십계등 선지지범개차(夫初心之人 須遠離惡友 親近賢善 受五戒十戒等 善知持犯開遮)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오계나 십계 등을 받아 계를 지켜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계율을 어기고 범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알려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지눌 스님도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합니다.”

스님은 계율을 지키는 것과 함께 평소 수행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물일조진.(三日修心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 스님은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며 수행을 통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불자들에게 법문을 하면 신심과 원력,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언어의 사용에 대한 당부도 해요. 사람관계라는 것이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는 적어도 장점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고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알아듣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은 수행들이 모여 큰 수행이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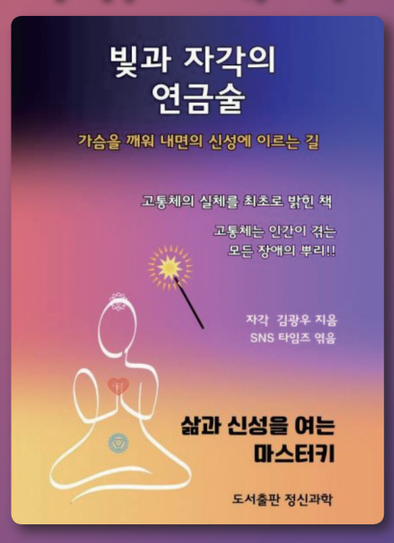
지난 주말 긴 동안거가 끝나고 수행자들은 만행을 떠났다. 스님은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자기수행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제하고 나면 보통 만행에 나섭니다. 평소 가보지 못한 곳을 찾기도 하고 국내외 성지도 갑니다. 저는 납자들에게 부처님 성지순례를 권합니다. 성지에서 부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성지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다짐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지에 갈 여력이 안 된다면 부처님 전기를 다시 읽어봐도 좋습니다.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녹야전법상(鹿野轉法相),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을 보기만 해도 신심이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인터뷰는 점심 공양 후에도 한참 동안 이어졌다. 해인율원 문을 나서는데 성철 스님이 율원을 만들 때 내려줬다는 ‘정행당(淨行堂)’ 글씨가 보인다. 어른스님이 솔선해서 보여주는 ‘정행’에 율원 학인스님 10명은 물론 가야산 대중 전체가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한다.

유철주 / 작가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